

“민생 · 현장 · 실천 중심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군산 선거구는 초반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인의 낙승이 점쳐졌으나 중반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거듭했다.

김 당선인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그가 초선이지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재선의원이란 배지를 안겨줬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강수를 뒤 초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민생경제와 소시민을 살리는 군산을 만들겠다”는 역할론을 내세워 지지세를 이어갔다.

또 TV토론회에서 새만금방조제 행정관할 재조정과 관련한 상대 후보의 집요한 공격을 설득력 있는 논리와 조리있는 화술로 맞대응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40대 기수론, 즉 짧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정통 야당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군산에서 보수층 결집과 젊은층 이탈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김윤태 후보는 중앙당 전략공천을 등에 업고 이번 선거에서의 비상을 점치는 분석이 적지 않았지만, 일부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 것이 오히려 바닥민심을 등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재선에 성공 남달랐을 것 같다.

새정치를 하라는 군산시민과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라는 명령으로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 - ⑥군산 김관영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의 무서운 공세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인은 ‘40대 기수론’을 전면 부각하고, 정책선거에 집중해 수많은 군산지역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재선에 성공한 젊은 그의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확장성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리더십?

“사실 호남을 제외하곤 부진... 당을 더 키워야 대화와 타협 통해 다른 당과 협조체제 유지”

재선의원으로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공정성장 강화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

본다.

▲선거중반이후 많이 추격당했는데?

아무래도 상대후보가 뒤늦게 출발해서 초반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지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지지기반 결집에 노력했다. 특히 네거

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에 집중한 것이 주요했다. 이런 점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결과로 나온 것 같다.

▲국민의당 전북지역 바람 평가해본다면?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정권교체는 어렵다. 호남 정치를 새롭게 재구성하라는 열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권 재구성에 대한 전북인의 마음 표출로 본다.

▲국민의당이 확장성을 더욱 갖기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나?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하곤 부진하게 사 실이다. 이에 당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

는 장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관영계로 분류된다. 본인은 어느쪽이라고 생각하?

그분하고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님은 제가 성과를 내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런걸 보고 누구 누구 계로 분류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정 현안 뿐만 아니라 타당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처가 컸다. 잘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당위원장은 계속 맡을 것인가?

그것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무위가 아닐까 싶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공정성장을 강화하는 법안에 관심이 많다.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사실 기업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다.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다뤄보고 싶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유권자에게 한마디

국민의당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민생 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정치로 시민들께 헌신하겠다.

/신광영 기자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자”

제20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치열했던 선거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매진해도 모자랄 때에 끝 모를 다툼과 불화만이 지속되는 것은 시민의 뜻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갈등종식과 지역화합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선대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과 민선 6기 새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화합의 대의를 세우겠다”며 “이번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국회의원의 탄원이나 구명 등 가능한 모든 힘을 보태 포용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타 지역은 새로운 출발을 만들고 있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뿔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의 익산, 치유되는 익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왕일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검토”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전주 병)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대화 재개결의안 추진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 당선인은 21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개성공단 전북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 전북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개성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황과 고용유지기간 연장, 개성에 놓은 온 개인물품 보상 등을 요구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저리대출과 세금유예뿐이다. 이들 모두는 결국 갖거나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다”며 “정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문을 닫게 생겼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반제품, 완제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피해는 있는데 피해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은 21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성공단 전북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2차 기업 피해가 더욱 크다.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돼 80%이상이 2차업체이며 5,000개 기업에 1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폐쇄로 인해 주문이 해외로 이전하면 쓰나미처럼 피해가 물려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당선인은 “심적 고통, 물질적 고통이 심할 것이다. 지금은 위로밖에 할 수 없지만 4월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만

들어져 통로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정 당선인은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 실패이고 실정으로 판단된다. 좋은 정치가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 첫 개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대화재개결의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개성공단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진안지역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 진안마을 주식회사’와 정북대에 위치한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를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정사업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내 농식품 6차 사업과 8개사업장 매출이 대부분 레스토랑과 농산물 직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체험장 시설 확충 및 활용, 가공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수익창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민(군산) 의원은 “현재 6차산업 종사자는 94만9,000여 명이며 현 추세로 확장된다면 2025년경에는 121만7,0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북지역의 필요인력에 대한 수급분석을 주문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호영(김제) 의원은 “전통방식을 활용한 1차산업 기준을 강화시켜 6차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재완(완주) 의원은 “각 사업별로 참여 농가 및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의 배당의 합리적 배분 대책마련과 독립채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예결위원들은 전북대 위치한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조병서(부안) 의원은 “공동연구소가 2017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지원 장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세(비례대표) 의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따른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현장 목소리를 담아 오는 5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6월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다들미인쇼핑몰

가정의 달 기념 5월 한달 내내 펼쳐지는

릴레이 페스티벌

오월 한달 내내 **경쟁, 내장, 의성, 단합** 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 5: 다들미인쇼핑몰 오픈 5주년
- 5: 5월 가정의 달
- 5: 5번의 기념일에 감사의 건강푸러미를 드립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모든제품 100% 무료배송** **주문예약**

다들미인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네이버에서 다들미인쇼핑몰을 검색해 보세요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 / 063-532-4345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응원합니다.

첫번째 릴레이 근로자의 날을 위한 푸러미로 주는 분, 받는 분 모두가 만족스러운 건강푸러미입니다.

예약일 4월 26일(화)까지 발송일 4월 27일(수)

5월 5일 어린이날 행복아기러기.

두번째 릴레이 어린이 날을 위한 푸러미로 외갓집 외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5월 8일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세번째 릴레이 부모님을 위해 최적화된 건강푸러미로 자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최상의 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5월 15일 스승의 날 존경합니다.

네번째 릴레이 드리는 분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정성껏 준비한 품위있는 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10일(화)까지 발송일 5월 11일(수)

5월 21일 부부의 날 사랑합니다.

마지막 릴레이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의미있는 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18일(수)까지 발송일 5월 19일(목)